

김태호는 다릅니다.
더 크게 일하겠습니다!

무소속

전 경남도지사

김태호10

문재인 정권,
김태호가 심판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김태호가 발전시키겠습니다!



꿈에도 돌아오고 싶던 고향입니다.

일할 힘이 있을 때, 고향을 위해 더 크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낙후된 고향을 크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고향의 힘으로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은 김태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향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난생 처음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고향에서 태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땀과 눈물로 뛰고 또 뛰어서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도, 우리 고향의 큰 발전도,
힘있는 큰 일꾼 김태호가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태호에게 맡겨야 고향도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잃어버린 정권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더 크게 도와주십시오.
태호, 더 크게 일하겠습니다.

김태호의 고향 살리기 3대 정책!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 만들겠습니다!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농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농촌 교육의 근간을 지켜야
자녀를 고향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농업 살리기 법안과 농어촌 자율학교 지키기,
김태호가 고향을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고향 살리기 1호 정책

양파·마늘 농가 지키는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최저임금은 보장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은 왜 보장하지 못 합니까?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면서,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수입 농산물까지 풀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도록 법률로 못을 박겠습니다.



- 작목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법안은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향 살리기 2호 정책

자식 교육 걱정 없도록,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 방침 철회!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지방 교육의 버팀목인 전국 단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제,
절대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지방 교육이 살아나도록 농어촌 맞춤형 교육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향 살리기 3호 정책

농업인 생활 안정,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우리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수확 때까지 농민생활이 안정되도록 농업인 월급제 법도 만들겠습니다.



- **농민수당 법안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조례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농업인 월급제 법안은**
수확 때까지 교육비·생활비가 부족한 농민들에게 농협이 매달 농민에게 월급 지급하고
수확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 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호, 언제나 농업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태호, 큰 정치로 우리 고향을 일으키겠습니다!

낙후된 우리 고향을 일으켜 세우려면,
큰 정치와 큰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고향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근본 틀을 바꾸는 큰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통 큰 지원,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태호의 큰정치 3대 약속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부 개혁 추진

- 재정 자립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 고향사랑기부법 제정
- 인구장관 신설 및
지방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

농사만 지어도 행복하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촌 지키기

-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 농민수당 입법화
- 농업인 월급제 입법화

지방에 살아도 자식 교육 걱정 없도록! 늙어 병드는 걱정도 없도록!

- 농어촌 자율학교 모집 특례 폐지 방침 철회
- 농어촌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
- 획기적 노인복지 정책 추진 :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종류 및 적용 확대

태호의 고향 살리기 5대 약속

1 | 4개 군 공동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소통과 협력을 위한 4개 군 정당·행정·의회 협의체 결성

2 |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 권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광 개발 추진
- 머물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추진
- 휠체어 목욕탕을 갖춘 효도리조트 개발
-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 후 친환경 산악케이블차 추진

3 | 노후 걱정, 안전 염려 없는 농촌 100세 시대를 열겠습니다!

- 정부 출연 노인종합연구기관, 실버클러스터 추진
- 노인공동생활 가정,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 치매전담 공공요양시설 건립
- 노인교통안전 인프라 [실버존] 확대

4 | 문화·체육·관광·교육·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발전 이끌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고향 발전 방안 수립
- E-스포츠 대회 유치, E-스포츠 선수촌 설립
- 4개 군 경남거창도립대학, 바이오산업, 향노화기업 연계 향노화산업 육성
- 세계적인 희귀·난치병 치료 센터 유치
- 승강기 전문 국책연구기관 유치

5 |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 파크골프장,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 폭 확충
- 삶의 질 높이는 주민 밀착형 '생활 SOC' 지속적 확대



우리 고향, 태호는 이렇게 키우겠다

가야산권역

세계문화유산 독립운동의 산실, 온천휴양지구

- 애국유산 탐방코스 개발 :
해인사, 파리장서 발상지, 우두령 의병전투 유적지
- 권역내 이동도로 연결
- 울곡면 노양~야로면 터널 개통



황매산권역

물, 꽃, 영화(映畵), 영상체험 관광지

- 황매산 권역 관광 및 영화 촬영지 재조명 :
합천댐, 황강변 벚꽃, 황매산 철쭉,
합천영상테마 파크

황강 권역

물과 모래와 함께하는 레포츠 휴양 지구

- 황강변을 수상레포츠 메카로 육성
- 국도24호선 거창~합천, 합천~창녕 4차선
확장 추진



권역별 맞춤형 발전 방안

지리산권역

한방향노화, 선비문화와 관광 연수교육의 메카

- 한방향노화엑스포 재추진
- 선비문화 유적 관광 자원화
- 기업, 기관 연수교육원 유치
-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추진



덕유산권역

산삼향노화, 고운 최치원과 함께하는 계곡휴양 지구

- 산삼 및 임산물산업특구 조성
- 고운(최치원) 관광권역 개발 : 함양 상림공원, 서상 부전계곡,
안의 용추계곡, 화림동 계곡, 농월정, 북상 월성계곡, 수송대, 금원산



습니다!

산청

- 항노화 산업의 기반 한방약초산업 육성
- 항노화 식품 클러스터 조성
- 천연물신약을 이용한 희귀성질환치료센터 유치
- 산청세계전통의약 엑스포 재추진



합천

- 남부내륙 KTX조기 착공
- 황강 대개발 추진
- 해인사 문화생태관광
-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기착공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4개 군 맞춤형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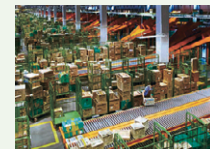
거창

- 승강기 관련 국책연구기관 유치, 산업단지 활성화
-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 가조온천지구(골프장, 4계절 테마워터파크, 둘레길) 머무르는 관광
- 자사고, 특목고 폐지정책 백지화로 교육도시 거창 위상 제고
- 웅양~김천간 국도3호 4차선 확장



함양

- 남부내륙 물류 허브 기지
- 지리산권 보전지역 해제 적극 추진
- 서상IC~안의 국도26호 4차선 확장
- 함양~지곡~안의 국도24호 4차선 확장
-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복선 추진 및 조기 착공



태호, 꼬~옥 살아서

한번도 떠나 본 적이 없는
친정집 같은 당을 잠시 떠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정치 지도자급은 고향에서 출마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상한 논리 때문에 저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후보자들간 경선의 기회조차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참 나쁜 결정입니다.
우리 지역 분들, 고향 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남에서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치력, 영향력 있는 후보가 나와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길 갈망하는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공관위가 이 지역에는 누구나 공천하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결례를 한 것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태호! 공천 안 주겠다고, 그 정도 압박하면 고향을 떠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래 버티고 있는거 보니까 진심이 보인다. 니 다시 떠나면 꼴도 안볼라 했다”

참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바램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마을마을마다 다니면서 만난 분들은
“왜 이래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래 버티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나” 꾸밈하십니다.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여기서 계속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떠나야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떠나지 못한 이유는 어떠한 대의명분보다
고향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도 김태호가 이곳 고향 거창 산청 함양
그리고 합천에 오고 나서 변화의 싹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태호가 일하는 거 보니까 쓸만은 하다”

이 이야기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아준 김태호!
정치하는거 보니까 우리 자존심은 지켜주네”
이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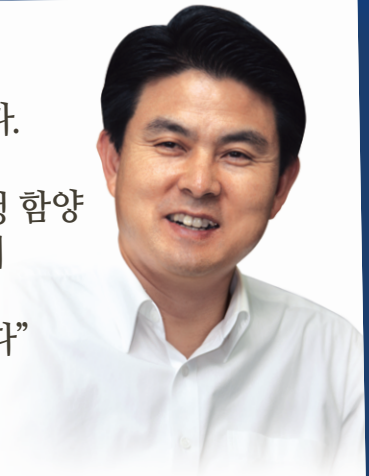
당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나라를 아슬아슬 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잃어버린 정권도 되찾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 김태호의 꿈도 더 키워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우리 고향발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의 군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태호 고향에서 꼭 지켜 주십시오.

죽도록 뛰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태 호 올림



“태호, 끝까지 고향을 지키겠습니다”

f taehois

고향에 와 보니,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집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약속드린 일들, 하나하나 모두 실천하겠습니다.
더 큰 정치로 우리 고향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아들, 형님, 동생으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태호, 일만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지켜주십시오.

무소속



국군장병 여러분께

저와 제 아들 모두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빛나고 희망과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히 돌아오십시오.

10 전 경남도지사 김태호

- 육군 병장 만기 제대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경상남도 도의원 · 거창군수
- 경남도지사 (제32대, 33대)
- 국회의원 (제18대, 19대)